

# Gruenrekorder in Seoul

Curated by Mary Song  
Coordinated by Jina Nam

**August 19th - 31st 2010**

closing party: Aug. 29th, 6-8pm @ MV Agusta

Part 1- Introduction: Gruenrekorder

Part 2- Via Mongolia by Roland Etzin

Sound Recordings by Roland Etzin

Pictures by Katrin Hoedemacker and Roland Etzin

[www.gruenrekorder.de](http://www.gruenrekorder.de)

성북구 석광동 261-194: Apres-Midi

성북구 예술길 120-3 한예종 미술원: B105

강남구 청담동 21-1 뉴라이트 빌딩: MV Agusta

그린레코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코드사'이다. 소니나 EMI같은 큰 레코드 회사들이 세계 음악 시장을 주무르듯, 레코드사를 생각하면 흔히 대형 기업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린레코더는 실험 음악이나, 필드 레코딩, 사운드 아트 등을 홍보하고 레코딩하는 단체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단체의 성격은 시각 예술에서 나아가 소리라는 예술의 영역을 새롭게 지각하게 하는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개념을 부각한다.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용어를 만든 Murray Schaffer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랜드 스케이프(Landscape)'와 비교하여,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개념을 일반 대중이 더욱 잘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풍경은 오랜 로마시대부터 풍경화라는 이름으로 시각적으로 기록되었지만, 청각적으로 기록되어 그것이 예술의 형태로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하지만 존재하는 이 소리의 풍경이라는 점에서 '사운드 스케이프'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풍경만큼이나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그린레코더 인 서울>전은 사운드 아트를 지어낸 레코드사인 그린레코더를 한국에 소개하고, 콜란드 에친의 몽골리아 횡단 작업을 통한 필드 레코딩을 전시하면서 시각 문화의 청각적 이해를 시도한다. 그동안 그린레코더는 라디오를 통한 전시를 시도하기도 하고, 작품 공모 등을 통해 사운드 아티스트들을 지원해 오는 등 실험적이고 선진적인 레코드사로 활동해 왔다. 콜란드 에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몽골리아 횡단 열차를 타게 된다. 도시에서 보이는 시티스케이프(city scape)에 대한 필드 레코딩을 통해서 아이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의 소리를 녹음하기도 한 그는 이번 몽골리아 횡단을 통해서 여행에서 보는 '랜드 스케이프'와 함께 '사운드 스케이프'를 가지고 서울로 오게 된다. 이는 필드 레코딩을 통해 채집된 소리를 듣는 관객들에게 사진과 풍경화와 같은 시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청각으로 타인의 여행을 나눌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Gruenrekorder is a so-called 'record label' company. As the big companies such as Sony or EMI control the world music market, when we think of 'label,' we usually end up thinking of big companies such as these. Gruenrekorder however, is a German label promoting experimental music and phonography. Gruenrekorder emphasizes the concept of 'soundscape,' which lets us perceive the realm of art through more expansive auditory means rather than just the visual. A. Murray Schaffer who invented the term 'soundscape' explained the identification of 'soundscape'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more familiar terminology of 'landscape.' Landscapes have been drawn by many artists since the Roman era, whereas 'soundscapes' had not been preserved over the course of history as an art form. Soundscapes have nonetheless been existing all along, and have been influencing us as much as the visual form of landscapes.

The purpose of <Gruenrekorder in Seoul> is to introduce Gruenrekorder, which supports sound artists and collaborates on various artistic projects in the fields of phonography and experimental music. The Seoul exhibition also aims to foster greater auditory appreciation of visual culture through 'Via Mongolia,' a field recording by Roland Etzin who is one of the co-founders of Gruenrekorder. Etzin who has been involved in other field recording projects such as the 2004 urban sound stories from Dublin has arrived in Seoul with his most recent 'Via Mongolia Project,' which emerged from his travels to Korea on the Trans Mongolian train. This particular exhibit will allow the audience to become immersed into the travel journey of the artist not only through the visual photographs and images but the auditory stimuli of the field recordings.